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 총사업비 7,716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107.9MW)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 제1~3호 프로젝트들도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

### 【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개요 】

금년 1월에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총사업비 7,716억원)가 선정되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내년에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 중

지난 3.26일 펀드 출범식을 통해 2건의 제1호 프로젝트\* 선정을 처음 발표하였고, 이어서 9.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3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한 이후에 약 2개월만에 제4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1,133억원 규모),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원 규모)

-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규모)

## 【 제4호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제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7,716억원을 투입하여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으로,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일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간 뒤, 3년 후인 '28.3월에 준공되어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 (수소연료전지 발전) 천연가스를 개질(改質, reforming)하여 수소를 생산한 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금번 제4호 프로젝트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산단인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그간 전력이 부족해 이미 계획된 투자들이 지연 중인 상황인데, 동 발전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어 산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원, 지방세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104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도 촉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금번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토대로 중요 도정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 그간 제1~3호 프로젝트 추진동향 】

한편, 지자체들에 따르면, 제1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및 제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모두 모펀드 선정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3개 프로젝트 모두 민간투자 유치까지 완료하여, 모펀드 투자액과 함께 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아울러, 대출 대주단 모집까지 조속히 완료하여, 3개 프로젝트 모두 연내에 착공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 중 제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이미 10.4일에 착공되었다.

## 【 향후 정책방향 】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가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추진 프로젝트 컨설팅 동향에 따르면, 금년 조성된 모펀드는 투자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25년 모펀드 조성 이전에 모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더욱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전문성 있는 위탁 컨설팅·교육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한층 더 수요자 니즈에 맞춤형인 프로젝트 컨설팅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 장	최진광	(044-215-7494)
		담당자	전문관	인동우	(044-215-7493)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전문관	하대륜	(044-215-7383)
			과 장	허남석	(044-205-350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사무관	강경국	(044-205-3522)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	책임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실 장	김사남	(02-787-5451)
	경상북도 민자활성화과	책임자	팀 장	최원재	(02-787-5454)
			과 장	홍인기	(054-880-3460)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책임자	팀 장	이하녕	(054-880-3471)
			과 장	김두환	(043-220-3310)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팀 장	김기완	(043-220-3321)
			과 장	강창구	(061-286-7210)
		책임자	팀 장	조영진	(061-286-7220)
			담당자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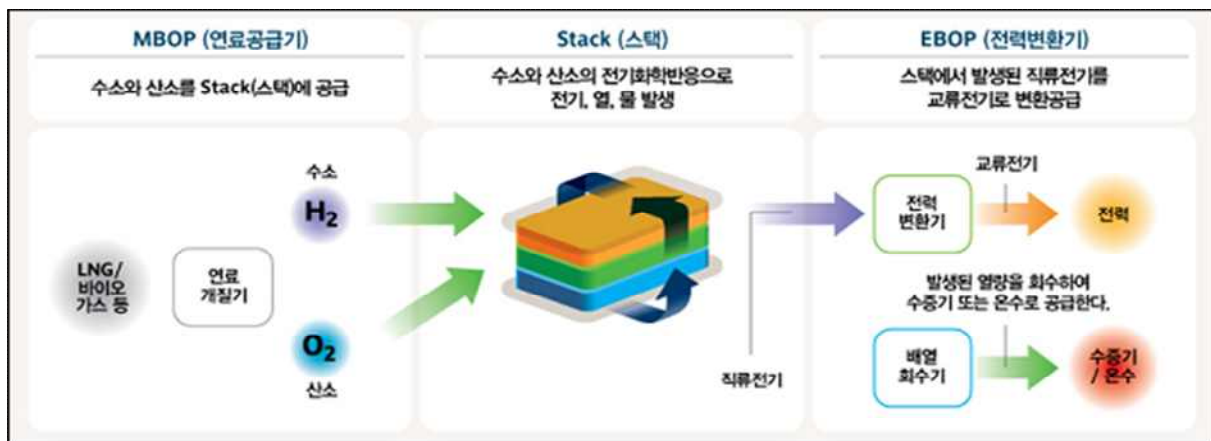
##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개요]**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 107.9MW(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 330KW 규모 연료전지 327대 설치 → 연간 약 27만 가구(4인가족 기준)에 전력 공급 가능

-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천연가스를 개질(改質, reforming)하여 수소를 생산한 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 생산

### 【 수소연료전지 발전 원리 】



주요설비	상세내용
MBOP (연료공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chanical Balance of Plant</li> <li>· 가스 처리(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수소 생산), 열 관리, 산소 공급, 수분 관리 등 연료전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li> </ul>
Stack (스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셀(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판, 냉각시스템 등으로 구성</li> <li>·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생산</li> </ul>
EBOP (전력변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lectrical Balance of Plant</li> <li>· 스택을 통해 생산된 직류전기(DC)를 교류전기(AC)로 변환</li> </ul>

- **[총사업비]** 7,716억원

- **[건설기간]** '25.3월 ~ '28.3월

□ **[기대효과]**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 전력이 부족해 이미 계획된 투자들이 지연 중인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원, 지방세 포함) 등과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104억원)\*을 활용한 추가 지역활성화 사업 가능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설치지역 반경 5km 내  
지역에 정부지원금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가능
- 또한,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업종인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  
연계된 투자수요 자극
- 경상북도는 금번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토대로,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참고>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경상북도)

☞ 글로벌 무탄소경제를 선도하고 에너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급, 수요, 산업, 사회 분야 7대 전략사업과 21개 실행과제 추진 발표

- ① **(청정수소)** 청정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전  
수소 산업혁신 R&D기반 조성
- ②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운영, 경북형 에너지공유 플랫폼  
구축, 신규 양수발전 건설
- ③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수상·산단 태양광 집적화  
단지 조성, 동해안 풍력발전단지 조성
- ④ **(에너지고속도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동해안 해저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유치
- ⑤ **(원자력산업 생태계)** 국가산업단지 조성(SMR, 원자력수소),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 조성, 원전해체 산업육성
- ⑥ **(차세대원자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연구기반 조성,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 실증, SMR 소부장 기반 구축
- ⑦ **(에너지항만)** 에너지 생산 플랜트 구축, 탄소중립항만 인프라 구축, 글로벌  
인수기지 구축


## 참고 2

## 제1~3호 프로젝트 주요 내용

### 1. (1호)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사업개요]** 단양역(新 중앙선) 거점 역세권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발생된 유휴부지(철도공단 소유)를 활용하여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호텔	케이블카	어드벤처돔	미디어아트터널
152실	단양역~만천하 스카이워크 (1Km)	짚코스터, 실내시설 등	VR, 메타버스 (1Km)
			

□ **[부지]** 단양역 ~ 심곡터널 51,842m<sup>2</sup> (15,682평)

□ **[기대효과]** 관광객 추가 유입과 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

- 연간 98만명(예상) 관광객 유입으로 단양군 관광산업 활성화
- 지역주민 우선고용(150명) 및 로컬마켓 운영으로 상생발전 실현

□ **[총사업비]** 1,133억원

□ **[진행상황]** 연내 착공 예정

- '24.11월 자펀드 투자자 모집 완료하여 자펀드 결성(완료)
- '24.12월 內 대출 대주단 모집 완료하여 착공

## 2. (2호) 경북 구미,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사업내용]** 구미 1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 주거시설(오피스텔) 공급
  - 노후도가 심한 20~30평대 아파트 위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1인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신규 근로자 유인에 애로
  - 총 506실 규모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 지상12층)



- **[부 지]** 구미시 공단동 256-16번지 외 (2,754평)
- **[기대효과]**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상권 활성화 및 개발수요 유도
  - 총 2조원의 구미 국가산단 기업투자(217개사) 유치와 더불어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첨단산단 전환의 첫 신호탄 역할
- **[총사업비]** 1,239억원
- **[진행상황]** 연내 착공 예정
  - '24.11월 자펀드 투자자 모집 완료하여 자펀드 결성(완료)
  - '24.12월 內 대출 대주단 모집 완료하여 착공



### 3.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사업개요]**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기 위한 접안시설, LNG저장탱크 및 기화설비 등 구축
  - 수입한 LNG를 부두에 바로 하역하여 탱크에 보관한 후, 기체 상태로 가공하여 인근 수요자에게 배관을 통해 송출



- **[부 지]**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일원 약 8.3만평 (27.5만㎡)
- **[기대효과]** 국가 제조업 중심지 여수 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
  - 1.3만명 규모 고용유발 및 2.8조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와 지방세,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연평균 242억원 지방수입 예상
- **[총사업비]** 1조 4,362억원
- **[진행상황]** 연내 대출 대주단 모집 완료 예정 (착공은 '24.10월 완료)
  - '24.11월 자펀드 투자자 모집 완료하여 자펀드 결성(완료)
  - '24.12월 內 대출 대주단 모집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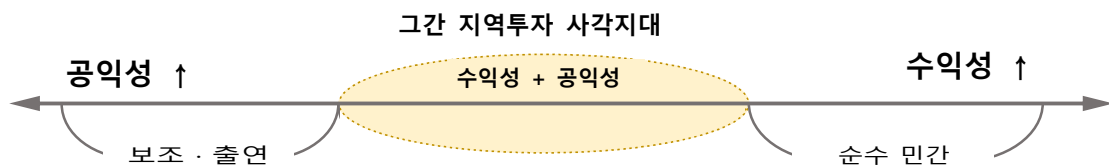


### 참고 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목적]** 官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 **[대상]**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Negative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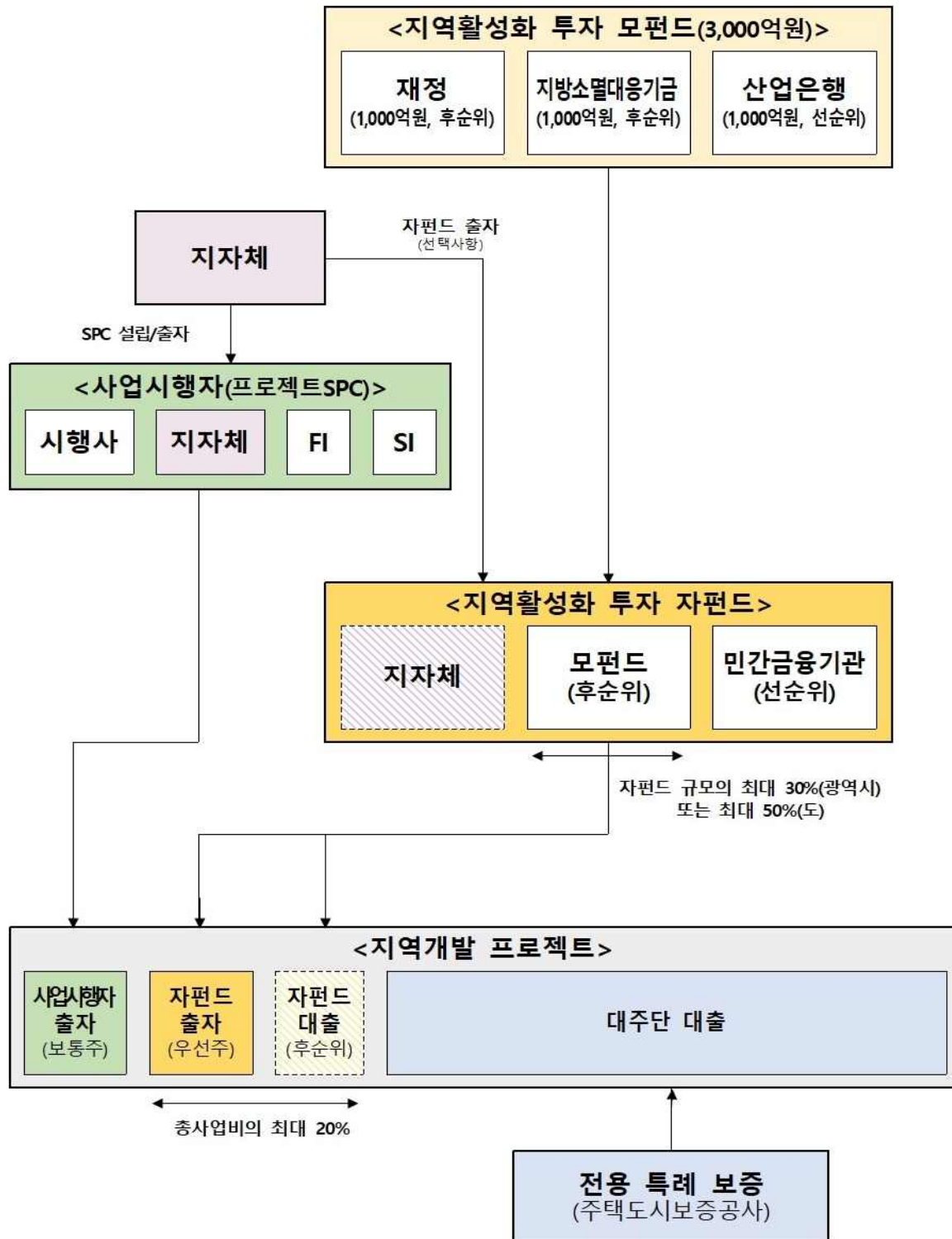
\* (예) 복합 관광단지, 노후산단 재구조화,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 **[구조]** 정부가 母펀드를 조성(24년 신규 3,000억원)하고, 지자체·민간이 SPC 설립, 子펀드 결성, 대출 모집 등을 통해 추진

<b>母펀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마중물 투자(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li> <li>▶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출자</li> <li>▶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li> </ul>
↓	
<b>子펀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펀드 재원을 후순위 출자</li> <li>▶ 민간 금융사가 운용사로 LP(모펀드, 지자체(선택사항) 등) 자금 관리</li> </ul>
↓	
<b>프로젝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시행사, 지자체로 구성된 사업시행자(SPC)가 프로젝트 추진·관리</li> <li>▶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li> <li>▶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도 활용하여 자금 조달(특례보증 제공)</li> </ul>

## 참고 4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 참고 5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주요 내용

- **[모펀드 조성]** '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 '25년(안)도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중

- **[모펀드→자펀드 투자]**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

- **[자펀드→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이며, 우선주 출자(필수) 및 후순위 대출(선택) 형태로 가능

\* 자펀드 투자기간: 20년 이내

#### 【 모펀드 대비 레버리지 규모 】

- (모펀드 → 전체 자펀드의 최대 50%) ×  
(자펀드 → 전체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 = **최소 10배**

#### 【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3-tiers) 】

- (모펀드 內) 산업은행 출자보다 정부자금이 **후순위 출자**
- (자펀드 內)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손실 부담**
- (PF 대출 內)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특례보증]**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sup>1</sup>을 전제로 대주단 참여 독려<sup>2</sup>, 수익성 보강<sup>3</sup> 등을 위해 제공

\* 1」 SPC 설립, 모펀드 운용사 투자 결정, 자펀드 투자자 투자 결정, 대출 심사 등

2」 은행권의 보수적 성향 고려 시, 특례보증 제공 시 참여 의사결정에 용이

3」 보증을 통한 리스크 경감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 조달 가능